

2002년월드컵축구대회에 대한 안전대책

김 두 현*

◇ 목 차 ◇

-
- I. 서 론
 - II. 2002년월드컵축구대회 안전대책의 중요성
및 관계법규
 - III. 월드컵축구대회의 사건·사고 실태 및
경호경비의 환경
 - IV. 2002년월드컵축구대회의 안전대책
 - V. 결 론
- 참고문헌
ABSTRACT
-

I. 서 론

지금 우리나라의 사정은 IMF라고 하는 한국전쟁이래 최대의 경제위기와 이를 계기로 국민의 정부(김대중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국제관계 등 전분야에 대한 개혁 및 구조조정 작업으로 인하여 심각한 격변기를 맞고 있으나,¹⁾ 지난

* 한국체육대학교 안전관리학과 교수, 법학박사.

1) 세계은행(IBRD)의 보고서 지적에 의하면, 한국 등을 포함한 동아시아인의 삶의 질이 경제 위기로 말미암아 20년전의 빈곤상황으로 되돌아가고 있다면서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환경을 급

1998년 6, 7월 프랑스에서 개최되었던 제16회 월드컵축구대회로 인한 세계인의 축구열기와 프랑스의 경제회복 및 국민통합의 계기를 지켜보면서²⁾ 비록 일본과 공동으로 개최하는 것이지만 한국에서의 2002년월드컵축구대회 개최를 매개로 하여 우리나라 경제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된다.

그리고 월드컵대회는 군사적으로 침예하게 대치하고 있는 동북아의 긴장관계를 완화시킬 수 있고 한일관계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남북한이 대치하고 있고 한일간의 과거사에서 비롯된 국민적인 감정 등으로 인한 경쟁적인 면도 있을 뿐만 아니라 민족문제, 국제분규 등의 불씨가 우리의 상황과는 상관없이 엉뚱하게 월드컵축구대회에 옮겨 붙을 수 있는 예상치 못한 테러, 사건·사고들이 발생할 여지도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월드컵축구대회에 대한 안전대책의 중요성 및 관계법규와, 「知彼知己, 百戰不殆」라는 말이 의미하듯이 지금까지의 월드컵 16회 동안 발생된 주요 사건·사고 사례와 국제테러의 추세 및 월드컵축구대회에서의 예상되는 테러양상 등 경호경비의 환경을 점점 분석하여 성공적인 2002년월드컵축구대회 개최가 될 수 있도록 사전안전대책을 강구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Ⅱ. 2002년월드컵축구대회 안전대책의 중요성 및 관계법규

1. 월드컵축구대회 안전대책의 중요성

월드컵축구대회의 안전대책이라 함은 축구대회 개최지역 내·외부에 산재한 인적·

속도로 악화시켜 실업증가, 소득감소, 빈곤층 확산, 심리적 상실감 등에 따른 범죄와 마약, 매춘 등 병리현상이 급증한다고 지적한 바 있고(동아일보, 1998. 10. 21일자, 49면), 유엔개발계획(UNDP)에서는 우리 한국의 올해의 삶의 질 즉 세계각국(174개국)의 「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 평가에서 30위(지수 0.894)에 랭크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조선일보, 1998. 9. 8일자, 2면).

- 2) 제16회 프랑스월드컵은 1998. 6. 10~7. 12(33일)까지의 대회기간 중 179개국지역 예선, 본선 32개국이 참가하여 250만 경기장 관람 인원 등을 통하여 25억F 예산을 들여 3억F의 이익을 보아 국가경제회복의 계기를 마련하였고 국운 상승 및 국민 사기양양 등으로 국민통합을 이룩하는 실적을 남겼다(안승일, '98 프랑스월드컵 현장리포트 -그 성공과 비결-, 1998. 8, 1면).

물적·지리적 취약요소에 대한 안전 강구, 경기장 내외곽 시설물에 대한 폭발물 탐지 제거 및 안전점검, VIP, 선수 및 관람객에 대한 신변보호 등 종합적인 대책이라고 볼 수 있다.³⁾

월드컵대회는 경제, 사회, 문화가 망라된 지구촌 최대규모의 행사(the biggest event on the planet)로서 올림픽과 함께 가장 인기있는 스포츠행사로 우리나라가 1986년 멕시코, 1990년 이탈리아, 1994년 미국, 1998년 프랑스, 2002년 한국 등 5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 등 이러한 역사적인 행사를 주최하는 우리로서는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는 관건은 안전문제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월드컵에 대한 안전대책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우리 속담과 같은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그 중요성이 강조될 수밖에 없다.

첫째, 안전확보가 최대의 서비스다.

축구가 아무리 인기있는 스포츠라 하더라도 사고, 전쟁, 질병, 무질서, 테러 등 생명에 대한 위기로부터 해방되려는 안전욕구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로 가장 우선시되는 것이 안전이다. 특히 월드컵 안전대책에 있어서는 safety(산업안전, 생활안전), security(경호, 경비), service(친절, 봉사)가 포함된 광범위한 안전을 요구하고 있다.

둘째, 안전한 행사개최가 남북간의 화해 및 세계 평화의 매신저(messenger)일 수 있다.

주요사건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역사적, 사실적으로 보아 북한의 소행으로 간주해왔기 때문에 남북한 지역에서 분산 개최가 이루어진다면 결과적으로 남북간에 있어서 화해증진의 계기가 될 수 있다.

지난 1990년 북경아시아게임의 계기로 남북이 대화의 물꼬를 트기 시작하여 남북한의 축구대표팀이 평양과 서울을 상호방문하여 친선경기를 펼친 바 있고 이어서 1991년 포르투갈 세계청소년 축구선수권대회에 참가할 남북단일팀 구성을 위하여 서울과 평양에서의 선발전과 남북단일팀으로 출전한 포르투갈대회는 축구를 통한 남북간 화해증진의 매신저 역할을 하였다.

그리고 이와 같은 월드컵개최는 남북한간의 관계증진은 물론 세계평화와 인류화합에도 중대한 진전을 이룰 수 있다.⁴⁾

셋째, 안전적 행사의 진행은 경제난 극복과 경제안정을 기할 수 있을 것이다.

월드컵의 성공적인 개최는 “Media Value” 극대화로 국제무대에서 우리나라의 국가 이미지가 제고되고, 경제적으로도 투자지출액 약 1조 5천억원, 소비지출액 약 8천억원 등

3) 김두현, 경호학개론, 도서출판 쟁기, 1996, 286면.

4) 최창신, 2002년 월드컵유치의 당위성과 경제적 파급효과, 국정연구 38호(1996. 3), 179~180면.

총 투자·소비지출액이 약 2조 4천억원으로 이에 대한 총생산 효과 약 8조원과 부가가치효과 약 2조 7천억원, 고용유발효과도 약 24만명에 이르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⁵⁾ 뿐만 아니라 사회통합과 국민적 화합을 다질 수 있는 비계량적 유발효과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⁶⁾에서 아무리 좋은 시설에서 훌륭한 선수들이 준비되어 있더라도 안전이 보장되지 않으면 아니된다.

넷째, 경기장 질서유지와 VIP, 선수, 관람자, 보도진들의 신변안전 보호를 통해 국위 선양을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프랑스 월드컵대회의 경우 740명의 참가선수와 250만명의 경기장 관람객들이 있었는데, 이와 같이 많은 군중이 모여들게 되는 경기장의 혼잡을 방지하고 혼잡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사전에 적절한 예방조치를 취하여 질서를 유지하여 VIP, 선수, 관객들의 생명·신체에 대한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경호경비에 대한 우수성을 내외에 과시하고 국가의 의전적인 차원에서 국위 선양 및 국제적 지위를 향상시킬 수가 있다.⁷⁾

2. 월드컵축구대회 안전대책에 대한 관계법규

FIFA규정에 따라 모든 안전에 관한 책임은 개최국에 있다. 이와 같은 안전은 선수·임원·방송 및 언론인과 관람자에 대한 경기전, 경기중, 경기후의 보호뿐만 아니라 그 나라 안에서의 여행동안 보호와 안전에 대한 보장을 포함한다.⁸⁾

따라서 2002년월드컵축구대회에 대한 책임은 한국과 일본에 있으므로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월드컵주경기장의 개막식과 10개 개최도시의 안전에 관한 책임은 우리 국가에 있다. 이와 같은 안전과 관련된 법규를 정리함으로써 관계기관의 책임의 소재와 한계를 규명지을 수 있을 것이다.

5) 다른 전문기관의 예측에 의하면 2002년 한국은 1인당 GNP는 약 24,000달러, 연간 무역규모는 4,000억달러(수출 2,100억)에 경상수지도 약 160억 달러의 흑자를 낼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이것은 IMF이전에 산출된 내용이어서 다소 편차가 크다고 볼 수 있다(백영철, "2002년 월드컵대회의 대테러전략", 경찰청 경비국, 「대테러연구」 제19집<1996. 12>, 148면).

6) 2002년월드컵축구대회조직위원회, 2002년월드컵축구대회 성공적 개최를 위한 세미나 결과, (1998. 10), 48면.

7) 김두현, 전개서, 33~34면.

8) 2002년월드컵축구대회조직위원회, 2002년월드컵축구대회 경기장건설관련 안내자료(2002월드 컵 준비자료집4), 1997. 3, 14~15면.

가. 2002년월드컵축구대회지원법

이 법은 2002년에 대한민국과 일본국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2002년월드컵축구대회조직위원회의 월드컵대회 개최 및 이와 관련된 사업을 지원하여 월드컵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국민체육을 진흥하고 국위선양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⁹⁾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는 월드컵대회의 시설보안과 선수, 임원, 보도진, 관람자 등 개인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제반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행정기관 등으로 구성되는 안전대책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따라서 동법시행령 제20조에서는 월드컵대회의 시설보안과 개인의 안전에 관한 지원사항을 심의하는 기관으로 안전대책위원회를 두며 그 위원장을 국가정보원장으로, 위원을 치안·경비·테러 방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으로 정하며 그 실무적인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안전대책통제본부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원장은 안전대책통제본부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하거나 기타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안전대책위원회 및 안전대책통제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2002년월드컵조직위원회위원장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가정보원장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국가정보원장이 2002년월드컵축구대회의 안전에 대한 총괄적인 담당부서로서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나. 대통령경호실법

이 법은 대통령의 경호를 담당하기 위하여 대통령경호실을 두도록 규정하고 그 임무로는 대통령과 그 가족의 호위와 대통령관저의 경비, 대통령으로 당선이 확정된 자와 그 가족의 호위, 본인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퇴임 후 7년 이내의 전직대통령과 그 배우자 및 자녀의 호위, 대통령경호실장이 특히 호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내의 요인에 대해 호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월드컵행사시 대통령경호실은 외국의 대통령, 국왕 등 외국의 원수와 같은 정도의 지위를 가진 외빈에 대한 경호임무를 수행해야 할 것이다.

9) 이 법은 1997년 1월 13일 법률 제5278호로 제정, 1997년 5월 6일부터(2002년월드컵축구대회조직위원회가 설립된 후 3월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 시행되고 있다.

대통령경호실장은 직무상 필요하다면 국가 각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공무원의 파견, 기타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는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경호실장소속하에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를 두고 있다.

동 위원회는 대통령경호에 필요한 안전대책업무, 경호에 유관한 첩보 및 정보의 상호 교환·분석, 기타 경호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반사항을 관장하는 것으로 대통령경호실장, 대통령경호실차장, 외교통상부 재외국민영사국장, 경찰청 보안국장, 법무부 출입국관리국장, 대검찰청 공안기획관, 문화관광부 관광국장, 건설교통부 수송심의관, 국가정보원 6국, 관세청 감시국장, 합동참모본부 작전참모본부작전차장, 국군기무사령부 1처장, 육군본부 헌병감, 수도방위사령부 작전처장 및 위원장인 경호실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공무원 등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위원 12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이한 점은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규정에 따라 대통령경호안전대책작용에 관하여는 위원회구성 전원과 그 구성원이 속하는 기관장이 공동으로 책임을 지도록 하고, 각 구성원의 책임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어 월드컵 국민행사의 경우에 있어서도 그 책임의 한계가 뚜렷하다는 것이다.¹⁰⁾

다. 경찰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

경찰법은 경찰의 민주적인 관리 운영과 효율적인 임무수행을 위하여 경찰의 기본조직 및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규정된 법으로, 동법 제3조는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 치안정보의 수집, 교통의 단속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경찰의 임무로 정하고 있다.

경찰은 국가경찰이면서 상급경찰관청으로서 경찰청장이 경찰행정을 관장하도록 하고, 각 시·도에는 지방경찰청이 설치되어 있다.

그리고 경찰관직무집행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호 및 사회공공의 질서유지를 위한 경찰관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으로 동법 제2조 제2호 경찰관의 직무범위에서 경비·요인경호 및 대간첩작전 수행을 규정하여, 주요 경호경비를 포괄적으로 경찰관의 직무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경찰은 국무총리,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국내 인사(7년이 지난 전직대통령)와 또는 이와 대등한 지위에 있는 외국인사에 대한 경호를 담당해야 하며 2002년월드컵축구대회지원법에서 정한 바와 같이 월드컵행

10) 각 안전대책위원회의 구체적 업무는 김두현, 경호경비법, 도서출판 와이제이, 1996, 84~85면 참조.

사와 관련된 치안·경비·테러방지 등의 업무를 수행해야 할 것이다.

라. 국가대테러활동지침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은 1981년초 북한이 캐나다인을 매수 국가원수위해기도 등 테러행위가 빈번해지자 1982년 1월 대통령훈령 제47호로 규정되어 당시 안기부, 외무부, 국방부, 법무부, 건설부, 내무부 등 유관부처로 구성된 대테러대책위원회와 대테러실무위원회를 편성하여 국가대테러에 대한 정책심의 및 결정을 담당하고 군·경으로 특공대를 조직하여 테러사건 현장에 대응할 수 있도록 규정한 지침이다.

정부조직법의 개정과 북한의 대남테러위협 및 재외국민의 테러피해증가 등 국내외 테러정세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동 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즉 대테러관계기관을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국군기무사령부 등을 추가 또는 명칭을 수정하여 대테러대책위원회의 조직을 증편하고 관계기관의 대테러 활동범위를 종전의 국제테러에서 국내외테러로 확대하고, 고성능 폭발물, 독가스 등을 이용한 다중 이용시설 공격과 무차별 인명살상행위 등의 신종테러에 대한 방지활동을 강화하고자 치안관계자의 테러사건 초동조치 책임을 명시하고 특공대의 출동과 관련 신속한 진압작전 수행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추가함과 아울러 유관기관 합동 대테러 훈련강화와 국제대회 테러방지대책 강구 등의 규정을 신설하였다.¹¹⁾

마. 청원경찰법과 용역경비업법

이 두 법은 치안수요의 급증에도 불구하고, 민생치안에 대한 경찰의 대처능력은 인력 및 장비의 부족, 업무량의 과중 등으로 인하여 그 수요에 적절히 부응하지 못하는 경찰력의 한계에 대한 보완적·대체적인 방법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경비에 관한 법이다.

우선 청원경찰법은 국가 중요시설, 국내주재 외국기관 기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중요시설, 사업장 등의 장소에 기관의 장이나 경영자가 소요경비를 부담할 것을 조건으로 경찰관의 배치를 신청하는 경우 그 기관시설 또는 사업장의 경비를 위하여 배치하는 청원경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제정된 법이며, 용역경비업법은 국가중요시설·산업시설·공공시설·사무소·홍행장·주택·창고·주차장·행사장·유원지·항공기·차량 기타 경비를 요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의 도난·화재 기타 혼잡 등으로 인한 위해발생을

11) 국가안전기획부, 국제테러·범죄정보, 1997. 1, 4~5면.

방지하는 시설경비업무와 운반 중에 있는 현금·유가증권·귀금속·상품 기타 물건의 도난·화재 등 위해발생을 방지하는 호송경비업무,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발생을 방지하고 그 신변을 보호하는 신변보호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급받아 행하는 영입의 실시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규정된 법이다.

대략 10만여명에 해당하는 청원경찰과 용역경비원¹²⁾은 월드컵행사시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10개의 경기장 내외에서 경찰력이 부족한 곳에 안전 및 질서유지 요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Ⅲ. 월드컵축구대회의 사건·사고 실태 및 경호경비의 환경

1. 역대 월드컵축구대회의 사건·사고 실태 및 양상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는 우리나라와 일본이 공동개최로 결정된 만큼 우리의 노력 그 자체만으로 평가되지 않고 일본과 비교·평가된다는 점에서 '86아시안게임¹³⁾과 '88서울 올림픽¹⁴⁾ 때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성공적인 개최가 어렵다고 할 수 있으므로 제1회 우루과이대회(1930년)로부터 제16회 프랑스대회(1998년)에 이르기까지 주요사건·사고를 되돌아봄으로써 2002년 월드컵 개최를 “안전하고 환영받는 경기장, 즐겁고 재미있는 월드컵 경기”가 될 수 있도록 他山之石으로 삼고자 한다.

-
- 12) 한국경비협회의 조사에 의하면 1998년 7월말 현재로 용역경비회사의 허가업체수는 1,274개 회사(이중 호송경비 업체는 14개사이며 신변보호 업체는 34개사임)이며 경비원의 수는 72,139명이다(한국경비협회, 한국경비협회20년사, 한국경비협회, 1998, 31~70면). 그리고 청원경찰의 수는 1996년 현재 30,310명(5,346개시설)으로 나타나 있다(이윤근, “각국 민간경비산업의 발전 과정과 향후 전망”, 한국경호경비학회, 「경호경비연구」 창간호, <1997>, 232면).
 - 13) 제10회 '86아시안게임시에는 1986. 9. 14 김포공항 국제선 1층 출입구에서 북한의 소행으로 보이는 폭발물 사건(콤포지손 C-4 : 1.5 Lbs)발생으로 5명이 사망하고 29명이 부상하는 사건을 제외하고는 경기장 내외에서는 안정적인 경기가 이루어졌다.
 - 14) 제24회 '88서울올림픽시에는 피전화접수 5건, 도난사건 32건, 폭력사건 2건, 폭발물관련사건 8건, 선전물훼손 4건, 화재사건 1건 등 총 52건이 발생하였으며, 분실 및 습득물 99건, 등록카드분실 및 대리사용 22건, 교통사고 7건, 선수부상사고 15건 등 총 143건에 불과해 서울올림픽의 안전대책은 역대 올림픽사상 가장 완벽한 것이었다(치안본부 올림픽기획단,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 치안백서, 치안본부, 1989, 1959면).

가. 주요 사건·사고의 현황

1930년우루과이월드컵축구대회부터 1998년프랑스월드컵축구대회까지의 주요사건·사고의 현황을 보면 다음 <표1>과 같다.

<표1> 역대 월드컵축구대회 주요 사건·사고 현황

대회 및 연도	개최국	사건·사고의 내용
제1회 (1930)	우루과이	주최국인 우루과이가 아르헨티나와의 결승전에서 4대2로 승리하자,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우루과이 대사관이 흥분한 축구팬들에게 습격을 당한 것을 계기로 양국간의 국교가 단절된 사건
제7회 (1962)	칠레	이탈리아 보도진들이 칠레팀들을 비난하는 방송이 나가자 두팀의 경기분위기가 험악해진 후 칠레선수의 강타에 맞아 이탈리아 선수 1명이 경기도중 반칙으로 퇴장하자 심판이 이것을 경기포기로 간주, 칠레의 승리로 선언한 것을 계기로 산티아고 전투로 발전된 사건
제8회 (1966)	영국	런던 우표수집상의 캐비닛 속에 보관해 두었던 월드컵을 도둑맞아 8일이 지난 후 픽클레스라는 사람이 개와 함께 산책하던 중 정원 속에 있는 트로피를 개가 발견하여 찾게 된 사건 발생
제9회 (1970)	멕시코	개최지가 고지대에서 선수들의 호흡곤란으로 정신적, 육체적 어려움을 겪은 경기였고, 그리고 적대관계에 있던 온두라스와 엘살바도르의 예선전으로 인해 전쟁으로 확대되어 1,000여명의 인명피해를 가져온 사건
제10회 (1974)	서독	1972년 서독에서 열렸던 올림픽대회에서 테러리스트들에 의해 11명의 이스라엘 선수들이 학살당했던 사건을 계기로 안전문제를 매우 중요시했던 대회
제16회 (1998)	프랑스	프랑스 남부 항구도시 마르세유에서 6월 14일 G조 예선인 잉글랜드 대 튀니즈 경기를 하루 앞두고 축구장 난동꾼으로 소문난 영국 홀리건들이 튀니즈응원단과 사소한 마찰로 난동, 또한 6월 21일 탐스에서 독일·유고전 뒤 독일 홀리건의 난동으로 경찰관 1명 혼수상태, 홀리건 34명 부상 사태가 발생하여 홀리건 700여명이 구금되어 이중 42명이 구속, 11명이 즉각 추방조치를 당한 사건

나. 주요사건·사고의 양상 및 교훈

전술한 바와 같이 역대 월드컵축구대회는 경기의 과열로 인하여 경기 당사국간의 국교단절, 전쟁 등으로까지 발전하는 원인을 제공하기도 하였으며, 인간의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지진·날씨 등의 천재지변으로 열악한 경기장 상태 또는 우승컵의 도난 등 다양한 사건·사고양상을 보이면서 오늘에 이르러 선수, 심판, 관람객, 주최국 등에 다음과 같은 교훈을 주고 있다.

첫째, 월드컵경기는 올림픽경기와는 달리 폭발물사건과 같은 대형사건보다는 칠레대회에서와 같은 잘못된 방송매너로 인한 사소한 감정싸움이나 심판의 부주의로 사건·사고를 유발하는 경향이 있어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월드컵대회는 '황금알을 낳은 거위'일 뿐만 아니라 역시 '뜨거운 감자'라는 점에도 유의해야 할 것이다.

특히 TV시청자의 수를 보면, 1994년 미국월드컵은 320억명(누적시청자), 1998년 프랑스월드컵은 400억명에 달해 방송매체의 위력이 대단한 만큼 신문, 방송 등 언론인의 보도자세가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이다.¹⁵⁾

따라서 국익을 위하여 이상과 같은 언론의 실수를 사전에 예방하는 방안의 한 예로서 가칭 "안전에 관한 대언론 발표 기본준칙"과 "발표전 고려사항"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다. 과거 미국은 대언론 관계의 미숙함으로 인하여 베트남전에서의 교훈을 삼아 걸프전에서는 언론보도매체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함으로써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 속에 완벽한 승리를 이룩할 수 있었다.

상기에서 본 바와 같이 프랑스 월드컵대회에서의 엄청난 훌리건 사건이 발생하였지만 프랑스 언론들이 자국의 이익과 효율적인 대회운영의 묘를 기하고자 확대보도하지 않았던 점은 우리 언론들도 귀담아 들어야 할 내용이라고 본다.

둘째, 축구경기에서는 승자와 패자가 있기 마련인 바, 그 어느 한쪽이 승리하든 패하든 간에 우루과이대회와 같이 군중이 폭군으로 변하거나 또는 흥분한 나머지 충기를 난사하기도 하는 등 언제, 어디에서든지 잠재적 사건·사고가 발생할 여지가 있으므로 항상 이에 대비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15) 지난 1996년 강릉 북괴 잠수함 및 무장간첩 침투사건 작전기간 중 언론의 무분별한 추측보도, 과장, 왜곡 보도가 대간첩작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내용을 보면, 작전기도의 사전누출이나 군사기밀 누설 그리고 작전지역 무단출입 및 방해 등을 초래한 바 있다(국방부, 군사작전과 보도-동해안 대침투작전시 언론보도내용 분석 및 대응-, 1998, 29~30면). 따라서 월드컵 행사 중에도 출입통제지역에 대해 취재방해로 몰아붙이면서 한사코 출입을 강행하려고 기도하여 경기장 질서를 파괴하는 우를 범하지 않을까 염려가 된다.

아무리 완벽한 시설과 경기운영을 훌륭하게 치른다 해도 만약 2002년 월드컵에서 최악의 경우 일본팀이 16강에 올라가고 우리팀이 탈락하는 상황 전개시 역사적 반일 감정이 팽배한 우리 국민들의 정서가 언제 폭발할지도 모른다. 따라서 월드컵을 성공시키려면 경기력 향상도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셋째, 서독대회에서 본 바와 같이 사건·사고의 유발을 막기 위해서는 대회기간만의 안전대책뿐만 아니라 개최전후의 사건·사고가 항상 대회로 연계된다는 점과, 개최국과 세계국가의 정치·경제·문화 등 총체적 영역에 있어서의 안전에 관한 분위기 조성도 중요하다는 점이다.

우리가 '88서울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었던 것은 우선 전국민적 참여 분위기 조성과 완벽한 안전대책계획수립에 의한 사전준비가 있었기 때문이며 올림픽 당시 미국이 중심이 되어 소련과 합의하고 온 세계가 '88서울올림픽을 성공시키자는 국제적인 합의도 있었기에 큰 문제가 없었다고 본다.

넷째, 행사장 경호경비도 중요하지만 영국대회의 월드컵 분실사고에서처럼 전국적인 치안경비(방법)도 소홀히 해서는 아니될 것이다.

선수과 관람객의 안전뿐만 아니라 관광객¹⁶⁾의 안전과 질서유지도 중요한 만큼 자원 봉사자, 시민단체, 민간경비업체, 경찰, 군간의 치밀한 역할분담과 협조로 안전대책, 질서의식안내, 사고예방 등으로 우리 국민의 자존심을 지키고 성숙한 문화시민의식(정신적 자산)을 세계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2. 2002년월드컵축구대회 경호경비의 환경

우리 한국이 2002년월드컵축구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해야 한다는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인간의 협동체로서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유기적인 상호작용을 하게 된다. 이에 월드컵안전대책을 담당하는 조직의 구성원, 예산, 규모 등 내적환경(internal environment) 및 그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외적환경(external environment)인 일반적 환경과 암살, 테러, 유격전 등 특수적 환경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IMF로 인한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자 문제 등 일반적 환경을 제외하고 우리나라의 지역적 특수성과 남북분단을 고려하고 월드컵대회가 세계적인 행

16) 한국관광공사의 발표에 의하면, 월드컵관광객 추진목표를 외래관광객 580만명, 월드컵관광객 35만명을 유치하겠다고 한다. 실제로 '98 프랑스월드컵의 경기장 관람객만 보더라도 250만명으로 최다관람인구를 기록한 바 있어 이에 대한 안전문제도 매우 심각할 것으로 본다(2002년 월드컵축구대회조직위원회, 전개 세미나 결과, 23면).

사라는 점에서 특수적 환경 중 최근의 국제테러의 추세, 북한의 테러 양상 및 월드컵축구대회시 예상테러를 중심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가. 최근의 국제테러 추세

1985년도 부터는 미·소·중 등을 주축으로 세계국가가 이데올로기 전쟁에서부터 벗어나 경제전쟁으로 전환되기 시작하여 사회주의 국가나 공산주의 국가에 있어서도 테러¹⁷⁾에 있어서 인권의 존중성을 존귀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북한을 제외하고는 여객기에 대한 폭탄성 테러는 국제적 분쟁상태에 있거나 적대국의 주요인사의 저격이 아니고서는 많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지난 10여년전의 테러에 대한 분석이었다.

그러나 최근들어 테러활동은 중파·수단·대상·피해정도 등에 구애받지 않고 널리 확산되고 있다.

1990년대에 와서 대표적인 예로서 1996년 한해만도 296건의 국제테러사건이 발생되어 1995년의 440건에 비해 144건이 줄어들긴 했지만 인명피해는 사망 311명, 부상 2,652명에 달하여 예년에 비해 크게 개선된 바가 없다.

미국무부가 발표한 세계의 테러조직¹⁸⁾에는 아부니달, 팔레스타인해방민주전선(DELP), 지하드, 무자헤딘 등 이스라엘과 유대인 지원세력에 무차별 테러를 가하는 회교관련 조직 11개와 회교계에 공격을 일삼는 유대인 조직 카츠와 카하네 차이 2개가 포함됐다. 또한 알제리에서 1992년부터 최근까지 6만명이 넘는 민간인과 군인을 무차별 학살한 알제리회교조직(GIA)과 1995년 3월 도쿄(東京) 지하철에 사린가스를 살포해 수많은 사상자를 낸 일본 움진리교도 미국무부가 꼽은 테러조직이다. 유럽에서는 스페인으로부터 독립을 주장하며 최근 지방의회의원 등을 살해, 스페인 국민들의 대대적인 저항을 불러 일으켰던 바스크분리주의 단체 ETA와 그리스좌파 그룹인 혁명인민투쟁(ELA)이 살상을 일삼는 단체이다.

이밖에 1996년 12월 페루 일본대사관저에 난입해 100여일의 장기간 동안 외교관 등을

17) 테러란 정치적·사회적 목적을 가진 집단이나 개인 또는 어떤 국가의 비밀공작원이 그 목적 달성 또는 상징적 효과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비전투요원인 타인의 생명·재산에 위해를 가하고자 사용하는 계획적인 폭력행위이다(김두현, 전개 경호학개론, 397면).

18) 1997년 10월 8일 미국무부 매들린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은 팔레스타인무장조직 하마스를 비롯한 외국단체 30개 테러조직을 발표하면서 1996년 제정된 테러단체지원금지법에 따라 이들에 대한 자료 및 무기지원, 봉쇄, 미국입국비자 발급거부, 테러조직의 미국내 자산 전면동결 등의 조치를 하였다.

인질로 잡았던 페루의 투팍아마루혁명운동(MRTA)도 대표적인 테러조직이다.

이상과 같은 지역별 테러조직의 현황을 보면 다음 <표2>와 같다.¹⁹⁾

<표 2> 최근 세계의 30개 테러조직 현황

지 역	조 직
중 동 (13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부니달(팔리스탄인계) · DELP(팔리스탄인계) · 하마스(팔리스탄인계) · PELP(팔리스탄인계) · 지하드(팔리스탄인계) · PLF(팔리스탄인계) · PELP-GC(팔레스타인계) · 헤즈볼라(반이란계) · 무자헤딘(반이란계) · 가마말-이슬람이야(이집트계) · 알 지하드(이집트계) · 카츠(유대인계) · 카하네(유대인계)
아시아 (6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옴진리교(일본) · 적군파(일본) · 아부샤야프(필리핀회교계) · HUA(친파키스탄계) · 크메르루즈(캄보디아반군) · LTTE(스리랑카반군)
유 럽 (5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TA(바스크분리주의자) · PKK(쿠르트반군) · 혁명11월17일(그리스좌파) · ELA(그리스좌파) · DHKP(터키마르크스파)
남아메리카 (5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DMR(칠레좌파반군) · FARC(콜롬비아좌파) · MRTA(페루좌파) · ELN(친카스트로계) · 빛나는 길(페루좌파)
북아메리카 (1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IA(일제리회교계)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은 여전히 1996년에도 이슬람 과격파를 비롯해서 보스니아, 체첸, 타지키스탄, 카슈미르, 필리핀 등 지역의 반군 구성원 훈련 기지로 남아 있었고,²⁰⁾ 세계의 테러 지원국가로는 여전히 쿠바, 이란, 이라크, 리비아, 수단, 시리아 및 북한 등 7개국이 테러 지원국²¹⁾으로 분류됐었다.

19) 한국일보, 1997. 10. 10일자, 13면.

20) United States Department of States, "Patterns of GLOBAL TERRORISM- 1996" (April 1997), pp. iii~vi, 1~3.

21) 테러지원국이란 그 스스로가 테러리즘에 가담하거나 테러리스트들을 훈련시키거나 테러리스트들에게 은신처, 무기 및 기타 보급 물자, 재정 지원, 외교적 편의 등을 제공하는 나라들을 지칭한다.

또한 최근의 국제 테러의 양상은 과거에 비해 상당한 변모를 나타내고 있다.

종래의 국가 테러는 1995년 11월 4일 발생한 이츠하크 라빈 이스라엘 총리 암살사건과 같이 정치적 목적을 널리 알리기 위한 방법으로서의 「이념형」의 성격을 띠어 왔던 데 비해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그런 이념적 바탕에 근거한 형태는 그런 대로 남아 있으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1992년이래 6년여의 기간 중 알제리에서 6만명의 희생자를 빚은 이념과는 관계없이 무조건 '살상을 위한 살상'이라는 보다 타락한 「맹목살상형」이 등장했다.

어느 종류건 테러행위는 일단 정신적 황폐 상태의 발로지만 그런 대로나마 타락하고 황폐된 정신상태 나름으로의 철학이나 행동 양상의 틀이 있었으나 1995년 3월 지하철도가 가스살포사건으로 일본을 발각 뒤집어 놓았던 음진리교테러,²²⁾ 1995년 미국 미시간 민병대의 오클라호마 연방정부청사 폭파사건과 같이 급격한 사회변화에 따르지 못하고 낙오된 세력들이 자신들의 불만을 전체사회를 상대로 해소하기 위해 불특정다수의 인명 살상자체를 목표로 한 테러는 어떤 형태로든 제어나 협상의 여지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보다 악성」 유형으로 등장했다.

특히 스포츠경기와 관련된 테러로서, 특정 국가선수들이 아니고 올림픽기간 동안 공원을 방문한 530만명 이상의 민간인을 겨냥함으로써 올림픽 자체가 목표가 된 최초의 치명적인 테러로 기록된 1996년 7월 27일 미국 애틀랜타 올림픽공원 폭발사건(2명 사망, 100여명 부상)은 뉴욕발 TWA 여객기 참사 후 불과 9일밖에 지나지 않는 시점에서 발생해서 이제 미국도 더 이상의 테러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근래에 와서 가장 보편적인 암살 도구로 사용되는 권총, 소총, 기관총, 각종 폭발물 등이 꼽히지만 특히 열쇠고리 권총,²³⁾ 우편폭탄,²⁴⁾ 로켓포, 소형 미사일 등도 경계 대상이 되고 있다. 또한 플라스틱 폭약의 혼합물(composite-4)은 고온, 저온, 충격 등의

22) 음진리교 교주 아사하라와 그 신자 4백여명이 구속됐었으나 최근에는 도쿄, 이바라기 현 등에 활동거점 및 중추시설 17개소와 지부 및 도량(道場) 16개소를 통해 재건작업이 한창이라고 한다(조선일보, 1998. 12. 5일자, 8면).

23) 이 총은 32구경(0.8cm) 열쇠고리 형태로 길이 7.6cm, 폭 2.5cm 크기(1회용 라이터 크기)로 제작되어 고리를 잡아 당겨 실탄 2개를 장전한 뒤 단추를 눌러 가스추진식으로 발사, 18m 이내의 거리에서 치명적인 살상 성능이 있다. 특히 이 총은 저성능급속탐지기에서 경보음도 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총을 동전 등 소지품과 함께 급속탐지기 옆 그릇에 놓으면 감시원은 이를 단순한 열쇠고리로 생각하기 쉽상이어서 비행기납치범이나 테러범들이 남부유럽 등에서 20달러의 싼값으로 쉽게 구입하여 이를 손쉽게 사용할 우려가 있다. 이 총은 1997년 9월 호주와 그리스, 12월 영국에 이어 1998년 4월 29일 그리스 아테네 공항 등에서 발견된 바 있다.

24) 최근 호주의 캔버라와 시드니 등에서 가정집, 사무실 등에 우편폭탄 26여개가 배달되어 전국의 비상경계령이 내려지는 등 긴장이 고조된 바 있다(경향신문, 1998. 12. 4일자 8면).

영향을 잘 받지 않고 테니스 공만한 양으로도 대형 트럭이나 경비행기 등을 폭발할 수 있다.²⁵⁾ 그런가하면 완구를 가장한 폭발물을 사용하기도 하고, 특정 인물의 음성이나 용모 등을 기억하여 본인임을 인식하면 센서가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신관을 작동하게 하는 브릴리언트 폭약도 실용화 단계에 들어섰다는 관측도 있다. 이런 폭약은 흩어져 있다가 대상 인물의 음성이 담긴 기록 영화나 텔레비전, 또는 초상화, 간행물 등을 접했을 때 폭발하여 대상 인물을 직접 살상하지 않더라도 대상 인물에 대한 시민들의 노이로제를 빚거나 사회 불안을 조장할 수도 있다.²⁶⁾

나. 최근 북한의 대남테러 양상

1997년 10월 8일 김정일은 이례적이고 변칙적 절차에 의해 조선노동당의 총비서로 추대되었으며 1998년 9월 5일 북한헌법을 개정하여 실질적인 국가원수로서의 권한과 법적 지위를 갖는 국방위원장에 재추대되어 1인독재체제를 갖추게 됨으로써 종전의 무력적 화통일이라는 대남적대정책에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²⁷⁾

북한은 1991년에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에 합의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IAEA사찰을 받아오다가 1993년에는 NPT(핵무기확산금지조약) 탈퇴라는 카드를 이용하여 경수로 공급협약을 체결하여 경제난 해소책으로 활용하고 있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긴장완화를 위한 제반 문제'라는 의제에 합의하여 1997년 12월 9일 4자회담이 개최되게 되었는데 북한은 이를 식량난을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²⁸⁾

그러면서도 군사정책 및 전략에 있어서 북한은 '계급 및 민족해방론'과 '전쟁불가피론'에 근거를 두고 한국 전 지역을 무력으로 적화통일 하겠다는 야욕은 그대로 유지함과 동시에 동해안의 잠수함 침투와 남·서해안의 간첩선 침투시도 등 파괴 및 테러공작의 비정규전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볼 때 1940년대 대남테러는 1948년 10월 18일 효자동 행차로상 이승만 대통령 암살미수사건, 1960년대는 1968년 1월 21일 무장공비 청와대 습격미수사건, 1970년대는 1970년 6월 22일 국립묘지 현충문 폭파사건과 1974년 8월 15일 경희루 돌다리 폭파기도사건 및 같은 날 제29주년 8·15 광복절기념행사시 박정희대통령 시해미수사건,

25) 이것은 과자, 비누, 동물모양 등의 완구로 위장하여 사용될 수 있는 위험물이다.

26) 김대수, "국제테러 추세와 우리의 유의점", 경찰청 경비국, 「대테러연구」 제20집(1998.1), 85면.

27) 김정현, 북한 최고통치권자의 경호부대에 대한 고찰 -호위총국을 중심으로-, 국방참모대학 논문, 1998, 3~5면.

28) 북한의 핵전략과 4자회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백영철, "김정일 권력승계이후의 대남전략의 전망과 대처방향", 경찰청 경비국, 「대테러연구」 제20집(1998.1), 145~153면 참조.

1980년대는 1981년 1월부터 11월에 있었던 캐나다인 매수 전두환대통령 위해기도사건, 1983년 9월 22일 대구미문화원 폭파사건, 1983년 10월 9일 버마 아웅산 폭파사건, 1986년 9월 14일 김포공항 폭발물사건, 1987년 11월 KAL기 폭파사건, 1996년 9월 18일 강릉 무장간첩침투사건, 1998년 6월 22일 속초 잠수정침투도발사건, 1998년 7월 12일 목호 무장간첩침투사건 등의 만행을 북한이 저질러 왔다.

그리고 북한은 1995년 11월 홍수피해에 대한 국제원조를 위한 수단으로 그 해 11월 반테러선언을 하고도 최근에도 아랍테러조직인 아부니달에 파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독침테러²⁹⁾로 보이는 1996년 8월 14일 중국 연지(延吉) 기아자동차 훈련원장 피살사건과 1996년 10월 1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최덕근 영사 피살사건³⁰⁾ 등도 북한에 의한 테러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하였다.

또한 1997년 6월 24일자 조선일보 사설에서 북한의 심각한 식량사정과 주민들에 대한 지나친 탄압으로 인한 책임이 김정일에 있음을 인식시키는 내용으로 김정일은 물러나야 한다는 글이 실린 직후에 북한은 동월 29일에 대남방송을 통하여 조선일보사의 건물을 폭파하겠다고 협박해 왔으며 한편 동년 11월 18일에는 KBS가 '진달래꽃이 필 때까지'라는 연속극 제작에 대하여 KBS건물을 폭파하겠다고 100여 차례 공개적으로 위협하기까지 하였다.³¹⁾

실제로 1998년 11월 18일 금강산관광차 현대 유람선이 북한 장전항을 향해 출발함으로써 분단 반세기만에 처음으로 본격적인 민간교류의 물꼬를 트는 역사적인 사건이었지만 북한측이 협박해 오던 대로 동월 17일 조선일보 및 KBS취재진, 그리고 통일부 직원들에 대한 입북을 거절했다가 4일 후인 21일에서야 선별 입북거부를 철회한 일이 있었다는 것은 북한의 단순한 엄포형 협박이 아님이 입증되었다.

이상과 같이 북한은 대남테러 공작기구를 대외연락부(구 사회문화부)와 35호실(구 대외정보조사부)로 확대개편하고, 대남 테러활동 요원으로 2천여명 이상의 특수요원을 양성하여 최소의 인력과 무기 또는 폭탄으로 불특정다수의 무고한 시민까지를 포함한 최대의 인명피해를 낸다는 전략으로 테러를 자행하는 양상을 띠고 있다.

29) 최근 북한은 인체투여 후 1시간이 지나면 체내에서 독성이 사라지는 독극물을 개발하고 만년 필형권총 등의 테러장비를 은밀히 구입하면서 대남 테러역량을 강화하고 있다(중앙일보, 1996. 10. 5일자, 23면).

30) 외교관 테러사건의 주요 일지를 보면, 1982년 2월 13일 최재근 주우간다 대사관 서기관 총격 부상사건, 1986년 1월 31일 도재승 주레바논 대사관 서기관 무장괴한 피랍사건, 1995년 3월 18일 이수준 주대만대표부 서기관 괴한 부상사건 등이 있다(한국일보, 1996. 10. 3일자, 51면).

31) 박원탁, "조선일보사 폭파위협에 대한 대테러 방안", 경찰청 경비국, 「대테러연구」 제20집 (1998. 1), 114~115면.

다. 월드컵 축구대회의 예상테러

주지한 바와 같이 월드컵축구대회가 한일공동으로 개최하되 한국에서는 개막식, 총회, 본선 조추천경기를, 일본에서는 결승전, 대륙별 예선 조추천경기를 치루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므로 세계 스포츠계, 정·재계인사, 선수, 관람객들이 한반도와 일본에 대거 몰려들 것이므로 이 대회를 표적으로 한 테러로부터의 보안문제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고 하겠으나 '88서울올림픽을 방해하기 위하여 KAL기 폭파도 서슴치 않았던 북한의 소행으로 미루어 남·북한 분산개최가 어려울 경우 대남 테러활동이 강화될 것이다.

북한은 1996년 1월 8일과 15일 두 차례에 걸쳐 국제축구연맹(FIFA)에 남북공동개최 가능성을 타진하는 전문을 보낸 바 있었지만 그 당시 블래터 FIFA사무총장과 일본의 총리가 일단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블래터 FIFA회장이 1998년 11월 30일 서울기자회견에서는 북한과 한국이 대화와 접촉을 통해 어떤 합의를 도출해 낸다면 부분적인 참여는 가능할 것이라고 말하였는 바³²⁾ 남·북한 분산개최가 성사된다면 북한의 테러로부터는 해방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일본과 공동개최함으로 인하여 선수와 관람객들의 이동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양국간에 출입국문제가 간소화될 수밖에 없으므로 국제 및 북한테러단의 입국이 용이해질 것이므로 각국의 극우주의자, 일본의 옴진리교와 같은 종교적 극단주의자 등이 북한과의 모의에 의하여 암살, 폭파, 하이재킹, 유인납치, 방화, 기구이용 등 예기치 못한 사태 내지 테러 발생 가능성을 상정해 볼 수 있다.

특히 북한은 파상적인 테러행위를 수행할 것이 예상되며 1960년대부터 독침과 독가스, 그리고 콜레라, 천연두, 페스트 등 다종의 세균무기를 꾸준히 개발하여 생물학전을 준비해 왔으므로 이를 사용할 수도 있고³³⁾ 월드컵 경기장보다도 지하철, 시장, 백화점, 상가, 공원 등 공공장소에 생화학무기를 살포, 무차별 살상을 저지를 가능성도 내재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 약 9,000개의 조직과 8만여명의 조직원을 거느리고 있는 러시아 마피아 가 중고차 수입, 어업거래, 러시아여성 일본송출 등을 통해 일본의 폭력단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마약, 무기, 돈세탁 등의 범죄활동을 전세계를 무대로 자행하고 있어³⁴⁾ 월드컵에 치명적인 상처를 줄 수 있는 테러가 발생될 여지가 있다.

32) 동아일보, 1998. 12. 1일자, C1면 ; 조선일보, 1998. 12. 1일자, 11면.

33) 생물학 무기는 제조가 쉽고 흔적을 거의 남기지 않은 채 보관할 수가 있으며 의도적으로 숙이려 드는 사람이나 조직·국가를 탐지 적발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인데, 북한은 현재 수포·신경·혈액·최루성 등의 유독가스를 8개 화학공장에서 평시에는 4500톤, 전시에는 연간 12,000톤의 각종 화학작용제를 자체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34) 국가안전기획부, 국제테러·범죄정보, 1998. 3, 54~58면.

IV.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의 안전대책

1. 월드컵대회의 안전대책 전략

전술한 바와 같이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에 대한 개최 환경은 매우 열악할 것이 예상되므로 안전대책의 목표를 '완벽한 대회 개최'에 두고 '안전하고 즐겁고 재미있는 월드컵 경기'가 될 수 있도록 테러와의 전쟁을 위한 안전대책 및 대테러 전략을 세움과 동시에 월드컵의 안전을 위한 국내·외적 준비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첫째, 국내적인 안전대책 전략을 위해서는 우선 월드컵행사 중 우리나라에서 발생가능한 사건 및 테러³⁵⁾가 어떤 유형이 될 것인가를 대인, 대물, 지리적 취약요소에 대한 다각적인 사전연구활동을 통하여 유형별 대책이 가능하도록 모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즉 역대 월드컵 개최국의 경호경비자료, '86아시안게임 및 '88서울올림픽 안전대책유관기관의 자료, 각국 국가원수 위해기도사건, 각국 암살 및 구테타사건, 각국 테러조직 및 테러사건, 북한 테러 및 침투사건 등의 자료수집 및 분석, 스포츠 해외국제대회시 시찰연구, 국내개최 주요국제대회시 월드컵 행사 예행연습, 전문가 초빙자문 등을 통해 사건 및 테러 유형별로 그 방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월드컵대회시 예상되는 테러 등 위해행위를 사전에 봉쇄하거나 위해분자들을 제압하기 위해서는 경호경비 및 대테러 요원들이 위해분자와 똑같은 사고에 익숙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둘째, 전세계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테러행위는 새로운 형태의 전쟁과 같은 것이어서 국제적 공동대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특히 월드컵의 공동개최를 위한 일본과의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을 국가정보원, 대통령경호실, 경찰, 군이 일본의 보안기관들과 테러퇴치를 위한 정보, 방법교환을 할 수 있어야 하고, 사법기관과도 국제체포영장 발급 및 수사진행 등의 법적 공조체제가 갖추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제반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칭 '한일공동안전대책기구'를 월드컵개최전부터 구성·상설 운영함으로써 신속한 대테러 공조조치가 가능할 것이며 이를 세계언론이 대외적으로 발표함으로써 일본과 북한 또는 서방국과 북한간의 외교문제 야

35) 우리나라는 KAL기 폭파사건, 아웅산 폭파사건 등이 우리 국외에서 돌발한 사건이었고 미국, 유럽국가, 중동국가들처럼 국제테러를 겪은 일이 없다. 굳이 실례를 꼽는다면 1970년 3월 31일 일본 하네다발 후쿠오카행 일본항공소속 「요도」호 항공기를 일본 테러단체 적군파테러리스트 9명이 공중납치, 평양행을 요구하여 서울김포공항에 일시 기착하여 연료를 강요하여 보급받아 평양으로 간 소위 「요도호사건」이 있다.

기를 고려하여 테러의 간접적인 억제 효과가 있을 것이다.³⁶⁾ 더 나아가서는 아시아지역 혹은 대륙차원에 미주기구, 아주기구, 유럽경찰 등 지역기구간의 협력체제를 갖추면서 인터폴, 유엔, 나토특별위원회 등을 통한 다자간 국제노력이 강구되어야 한다.³⁷⁾

그리고 보다 적극적인 테러방지를 위해서는 북한의 체육인 및 관계기관요원들을 월드컵행사에 초청하여 관람토록 하거나 남·북한월드컵관광유치단을 구성하여 수익금을 균분하는 방안 등을 강구함으로써 테러의 근본원인을 제거하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국내 안전대책기관간에 있어서도 종진과 같이 특정기관의 정보독점에서 탈피하여 유관기관간에 신속하면서도 정확한 첩보 및 정보를 제공하여 신종 테러 및 사건 등의 위해를 사전방지, 초동조치 및 진압이 될 수 있도록 공조체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테러리스트들과는 어떤 협상이나 거래도 하지 않겠다³⁸⁾는 자세로 국가지원 테러집단을 단순 범죄집단으로 전락시켜야 한다.

즉 테러리스트들에 대해서는 범죄자로 대하고 공격적으로 추적하며 법대로 취급해야 하며 그들을 지원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경제적, 외교적, 정치적 제재를 통한 최대한의 압력을 가하며 다른 모든 국가들도 동조하도록 촉구해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소극적인 방법도 있겠으나 북한의 테러를 예방하기 위한 적극적인 방법으로 월드컵행사 이전에 한국축구협회라든가 월드컵조직위원회 등이 국제축구연맹 회장 및 위원, 32개 월드컵참가국의 체육관계자들을 우리나라에 초청하여 속초 유람선을 이용한 북한의 금강산 관광 및 방문을 추진하여 남북분산개최의 분위기를 조성하거나 대남테러를 근본적으로 억제토록 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월드컵행사시 화재예방(Fire Prevention), 구조적인 안전(Structural Safety), 폭발물 탐지 등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보다 첨단 기술의 효과적인 보안시스템을 개발하

36) 제16회 프랑스월드컵행사에서 프랑스 정부는 대회를 앞두고 이탈리아·독일·스위스·벨기에 등 유럽 4개국과 합동수사 등을 공조하여 회교원리주의(알제리 무장회교그룹 : GIA)소속 테러범 80여명을 검거한 바가 있다(국가안전기획부, 국제테러정보, 1998. 7, 48면).

37) 최근에 대테러 국제공조논의로 1995년 1월 5일 튀니지 수도 튀니스의 중동 18개국 내무부장관회의에서의 「대테러 행동원칙」 합의, 1996년 7월 30일 프랑스 파리의 서방선진 7개국(G-7)과 러시아 등 조약국 외무 및 보안장관회의에서 국가간 정보체제 및 사법공조체제 합의, 1996년 7월 29일부터 31일까지 이집트 카이로의 아랍 16개국 보안담당책임자회의에서의 보안 및 경찰력의 공조 강화 등에 대한 협의가 있었다.

38) 1998년 12월 4일부터 11일까지 미국 워싱턴에서의 미·북간의 북한 금강리 지하시설 핵의혹 관련 2차회담 결렬은 북한측이 지하시설 입장료 3억달러 즉 대가거래를 요구하고 있어 이 원칙에 저촉되기 때문에 결렬된 것으로 보여진다. 사실 북한 핵문제는 1994년 제네바 합의를 통해 40억달러에 달하는 경수로 2기를 제공키로 한 바 있다.

여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수원, 전주, 서귀포 등 10개 지역의 경기장 등 주요 행사장 시설을 건설할 때부터 치밀한 계획, 설계, 설치 그리고 완전한 시스템 통합화가 되어야 하며 전문화된 요원에 의하여 사전예방이 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한다.³⁹⁾ 여기에는 폭발물탐지기, TV수신, 사고추적시스템(Incident Tracking System), 기계경비시스템, 화재경보시스템,⁴⁰⁾ 가스누출경보시스템,⁴¹⁾ 통신정보시스템 등 중앙통제가 가능한 체계적·통합적인 전자시스템의 개발이 필요하다.

그리고 기존의 군사작전용 무기체계는 어쩌면 대테러 작전용으로는 부적합한 경직성 문제를 내포하고 있을 수 있으며, 경호경비로 인하여 대상자의 프라이버시나 행동의 자유까지도 불필요하게 방해한다거나 장비가 너무 눈에 띄지 않도록 유연하면서도 은밀

- 39) 이와 같은 성공적인 예로는 1996년 미국 아틀란타올림픽을 들 수 있다. 아틀란타올림픽위원회는 전자장비와 인력을 조화시켜 올림픽 참가자들의 눈에 거스르지 않으면서도 완벽한 보안을 구사한다는 것을 목표로 활동했다. 예를 들면 IBM컴퓨터로 된 AC500이라는 시스템으로 각 경비구역에 체크포인트를 만들고 칩으로 만든 신분증과 출입통제를 자동화한 센서ID를 사용해 출입자 개개인의 허용구역과 시간이 엄격히 통제되도록 함으로써 청소원으로 출입증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청소구역과 청소시간을 위반한 출입을 할 수 없도록 했으며, 그리고 사진 대신 손의 지문의 특징을 기억해 개인을 식별하는 전자장비도 도입됐다. 또한 보안용 카메라 설치에 TV의 몰래카메라 프로그램을 방불케 하고 연방정부는 올림픽보안 전용의 무선주파수 90개를 별도로 열어 놓았으며 모토로라가 기증한 보안용 무선장비가 2만점에 달했다고 한다. 물론 이 대회와 보안을 위하여 선수단 1만 5천명보다 두배가 넘는 3만여명의 안전요원과 최첨단 장비에도 불구하고 개막식에서 권총과 실탄을 소지한 남자가 경비망을 뚫고 침입했다가 뒤늦게 검거되기도 하고 급기야는 2명이 사망하고 100여명이 부상한 올림픽공원 폭발테러사건이 발생해 오점을 남기기도 했다(William Rathburn, "The Olympic Games - Establishing Future Direction For Security", 에스원 「'97 서울국제시큐리티 포럼」 <1997. 6. 17>, 7~22면 ; 백영철, 전계 2002년월드컵대회의 대테러전략, 162~163면).
- 40) 최근 5년간 국내 화재발생 추세를 보면 1992년부터 1996년까지는 연평균 22,596건의 화재가 발생하여 13.3%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재산피해는 매년 평균 902억원으로 연평균 35.6%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인명피해는 매년 평균 1,969명의 사상자(사망 559명, 부상 1,410명)가 발생한 바 있으므로 월드컵 경기가 30여일 동안의 장기간동안 치루어지게 되므로 경기장, 숙박시설 등 주요시설에 대한 화재방지설비와 예방조치가 철저히 요구된다(박태유·김두현, "자치체 소방역량에 관한 연구", 한국경호경비학회, 「경호경비연구」 창간호 <1997>, 147면).
- 41) 최근 6년간 가스사고 현황을 보면 1992년부터 1997년까지 총 2,590건, 연평균 432건의 가스사고가 발생하여 총 867명 사망, 4,394명 부상으로 연평균 189명 사망, 732명 부상으로 나타났다. 특히 1998년 9월 11일 경기 부천시 오정구 소재 대성에너지 가스폭발사고로 사망 1명, 부상 83명의 인명피해와 64억 9천만원의 재산피해를 입은 바 있고, 그리고 1998년 10월 6일 전북 익산시 민화1가 소재 동양LPG충전소 폭발사고로 사망 1명, 부상 6명의 인명피해 와 2억 2천만원의 재산피해를 입히는 대형사고가 발생하였다. 이 두 사건 모두가 안전관리자 등 종사자의 가장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 데서 비롯된 것이므로 월드컵행사를 완벽하게 준비하기 위해서는 안전의식에 대한 대전환이 있어야 할 것이다(김영대, 1997 가스사고연감, 한국가스안전공사, 1998, 146면).

한 시스템이 필요하다. 물론 산업발전과 연계시켜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월드컵행사가 종료된 후에도 지속적으로 유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단 1회 사용 후 폐기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안전대책에서 무엇보다도 경제성·효율성이 저해된다면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라는 목적달성에 반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2. 월드컵축구대회의 사전대책

주지한 바와 같이 선수들의 꿈을 실현시킬 수 있고 관중들에게 즐거움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월드컵대회의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집행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관계법령 및 지침이 정한 바에 따라 기구, 인원, 활동, 장비, 교육 등에 대한 완벽한 계획, 준비, 집행이 될 수 있어야 한다.

첫째, 안전통제기구의 적절한 편성과 임무부여로 경비지휘체계가 일원화되어야 한다.

월드컵대회 안전과 관련한 정부의 부처별 소관업무 추진에 있어 공통되는 통제사항이나 여러 부처간의 협의, 합동처리 등 제반 안전업무 운영상 정부차원의 통제역할의 중심적 기구로서 심의기관인 안전대책위원회와 그 실무적인 사항을 처리하는 안전대책통제본부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안전대책위원회는 국가정보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을 행정자치부, 법무부, 국방부, 교육부, 문화관광부, 보건복지부, 건설교통부, 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의 각 장관과 서울특별시장, 2002년월드컵축구대회조직위원회위원장, 대검찰청장, 경찰청장, 합동참모본부장, 국군기무사령관, 관세청장 등 안전대책과 관련된 기관의 장·차관급으로 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안전대책통제본부는 국가정보원 차관급을 본부장으로 하고 그 밑에 국가정보원 직원 1인, 경찰청 국장급 1인, 국방부 장성급 1인 등 안전대책 주무부서 3인을 부분부장으로 하고 안전대책위원회 위원의 소속 요원을 기획총괄, 안전관리, 대태러, 군사대처 및 지원, 신변보호, 시설경비, 기술지원 등의 임무를 부여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안전대책조직의 지휘체계는 경비업무의 긴급성, 효율성이 요구되므로 단일화하고 이를 분할해서는 아니된다. 만일 지휘자가 수명이 있을 경우 이들 사이에 의견의 합치가 어렵게 되고, 행동통일이 쉽지 않아 경비작용의 실패를 초래할 수 있다.

그러므로 월드컵행사의 안전대책의 총괄기획·조정·통제는 국가정보원장으로 단일화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다만 월드컵행사 중 국가원수급 및 주요국가 수상 등 인사

에 대한 신변보호는 대통령경호실장의 단일지휘체계하에 경호가 이루어져야 한다. 대통령경호실이 담당했던 '88서울올림픽 경축사절단의 경우는 국왕 1명과 수상 3명의 국민이 있었으나⁴²⁾ 2002년 월드컵행사의 경우에는 방한국가의 대상은 각 국가의 경기실적에 따라 변수가 있겠으나 '88서울올림픽 때보다는 그 수가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안전대책위원회의 효과적이고도 완벽한 운영을 위해서는 경호·경비·교통·장비·소방·국제관계 등 학계와 전문기관의 경호 및 안전분야 인사 약간 명을 위촉하여 자문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둘째, 정확한 경호경비대상의 판단과 전문화된 적정 소요인력이 확보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본선진출 32개국⁴³⁾이 참여하는 월드컵 행사 개최식을 갖게 됨으로써 각 국가의 대통령이나 수상 중 많은 국민들이 방한할 것으로 예상되며, 프랑스월드컵행사로 보아 국제축구연맹회장 및 위원, 심판 및 선수(740명), 관람객(250만명) 등이 경호 및 신변보호대상자로 판단되며 월드컵주경기장을 포함한 전국 10개 주요도시의 경기장 시설, 숙박시설, 관람시설, 교통시설, 보도시설 등이 경비대상이라고 볼 수 있다.

'88서울올림픽의 경우 주요 경비시설이 총 314개소⁴³⁾였는데 이 때는 경비시설의 대부분이 서울과 경기지역에 분포되어 있었으나 2002년월드컵 행사시에는 전국 10개도시에 분산되어 있으므로 경호 및 경비소요인력이 훨씬 증가할 것으로 본다.

구체적인 소요인력 판단의 기준은 ① 인적 대상별로 요인경호와 신변보호, 물적대상별로 대회안전과 일반안전(기본, 시국)으로 각각 구분하여 ② 후술한 바와 같이 기본적인 인원배치를 4선개념으로 복선화하되 중요도 측정, 시설이용 상황(24시간근무여부), 행사출동횟수, 경호경비환경 등을 고려하여 ③ 경호원, 경찰, 군인 등 각각의 임무와 연계된 전문요원을 중심으로 적정하게 산출하여야 한다.⁴⁴⁾

42) '88서울올림픽 행사시 요인경호 및 신변보호를 보면 '구스타프' 스웨덴국왕, '다케시타' 일본수상내외, '쿡' 아일랜드수상, '브룬트란트' 노르웨이수상내외의 경호(대통령경호실 담당)와 IOC위원장, 수상급 인사(V1) 6명, IOC부위원장, 국제경기연맹회장, 부수상급 등(V2) 26명, IOC위원, NOC위원 등(V3) 138명 등 총 170명의 신변보호와 선수 8,835명, 임원 5,052명, 국제기구요원 2,116명, 보도진 9,278명, 기타 878명 등 총 26,159명의 신변보호(경찰 담당)를 한 바 있다(치안본부 올림픽기획단, 전계서, 227면).

43) '88서울올림픽행사의 주요 경비시설대상은 경기장(35), 선수촌(7), 숙소(34), 기타 선수관련 시설(26), 연습장(73), 문화행사장(81), 관광·쇼핑장소(58) 등 총 314개소였다(치안본부 올림픽기획단, 전계서, 115면).

44) '88서울올림픽행사의 경호경비인력은 경호원 109명, 경찰 12만명(대회치안 48,000명, 일반기본치안 41,000명, 일반시국치안 31,000명), 군 10,400명 총 13만여명이었다(치안본부 올림픽기획단, 전계서, 20, 115면). 이 당시 군의 임무는 주로 수도권 취약산악 수색, 교량안전 확보, 군

그리고 부족 및 보조인력에 대해서는 대학의 안전 및 경호관련학과의 학생,⁴⁵⁾ 용역경비업체,⁴⁶⁾ 자원봉사자,⁴⁷⁾ 방법위원, 청소년선도위원, 모범운전자 등으로 월드컵대회 질서유지 및 경찰과 군의 대회안전분야 동원으로 소홀해진 기본안전분야에 지원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다.

셋째, 4선경호경비개념의 채택으로 월드컵행사의 절대 안전을 확보하여야 한다.

지금까지 미국, 영국 등 선진국가에서는 경호에 있어서 경호대상자가 위치한 지역에서 가장 근거리부터 엄중한 경호를 취하는 순서로 따져 근접경호(Inner Ring), 중간경호(Middle Ring), 외곽경호(Outer Ring)로 나누고 이에 따라 근접경호요원(경호원), 근접 및 지원요원(경찰), 첩보수집 및 경계요원(경찰, 군, 정보기관)의 순으로 배치와 임무가 부여되어 있었고, 경비에 있어서도 1선(내부, 안전구역), 2선(내곽, 경비구역), 3선(외곽, 경계구역)으로 구분하여 경호와 같은 개념의 요원들을 배치하여 운영되어 왔다.⁴⁸⁾

그러나 최근에 북한 김정일을 경호하는 호위사령부가 신변보호를 강화하면서 1선(최고통치권자 측근호위, 사복), 2선(1선외곽호위), 3선(행사장이동호위, 2선외곽호위), 4선(행사장의외곽호위) 등으로 구분하여 호위사령부 1·2호위부 군관대대, 호위사령부 1·2호위부 호위중대와 국가안전보위부, 호위사령부 직속대대와 사회안전성, 국가안전보위부 등의 순서로 임무를 부여하는 4선경호경비개념을 도입하고 있다.⁴⁹⁾

특공대, 폭발물처리팀, 수중수색팀, 탐지견 등을 운영하였다(서울특별시경찰국 올림픽 기획단,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 종합치안활동백서, 1988, 27면).

- 45) 현재 국내 안전 및 경호관련학과로는 한국체육대 안전관리학과 160명 및 동 대학원 30명, 용인대 경호학과 180명, 한서대 경호비서학과 120명, 중부대 안전경호학과 40명, 대경대 경호행정과 40명, 부산정보대 안전관리과 40명 등 700여명이 있다. 이들 학과에서는 주로 경호학개론, 호위학, 경비학, 비서학, 의전법, 경호장비학, 테러학, 방법론, 범죄학, 안전학, 무도, 사격 등 경호경비이론과 실무를 배우고 있어 경찰인력에 준한 임무수행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 안전봉사요원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 46) 현재 국내 용역경비업체는 1,274개 회사에 경비원 92,139명이 운영되고 있으며, 지난 '88서울 올림픽 행사시에는 미국NBC방송단, IBC(국제방송센터), 올림픽공원, 올림픽펜타타운, 경마경기장, 여의도고수부지 등 10개시설에 한국보안공사, 범아공신, 신천개발, 향우경비 등 소속의 용역경비원 958명이 경비를 담당한 바 있다. 다만 '88서울올림픽주경기장은 서울시 소속 청원경찰이 자체경비를 실시하였다(한국경비협회, 전게서, 300~302면).
- 47) 현재 국내 자원봉사단체는 한국시민자원봉사회 등 55개 단체에 약 337만명의 자원봉사자가 있다. '88서울올림픽 행사시에는 2만 7천여명의 자원봉사자가 통역, 의전 등 각 분야에서 종사한 바 있으나(조선일보, 1998. 7. 19일자, 31면), 이 중에서 안전자원봉사요원은 3,548명으로 주로 경기장, 행사장의 출입관리, 임시출입증 운영, 안전통역, 출입자 소지품 검색보조 등을 지원하였다(서울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지원부서 결과보고서 13, 1998, 22~23면).
- 48) 치안본부 올림픽기획단, 전게서, 70~71면; 김두현, 전계 경호학개론, 56~58면, 305~306면.
- 49) 김정현, 전계 논문, 5~7면.

따라서 전술한 바와 같이 안전대책의 중요성과 역대 월드컵대회의 사건·사고의 교훈, 한일 공동개최에 따른 경호경비구역 확대 대응조치 및 북한·국제테러의 예상테러극복을 위하여 2002년월드컵축구대회에서는 4선경호경비개념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경기장 4선경비개념의 예를 들자면, 1선(절대안전확보선)은 경기장 핵심내부(출입문내부, 관중석, VIP실 등 핵심시설), 2선(완전봉쇄차단선)은 경기장 내곽(핵심내부시설 외의 내부시설, 울타리내곽), 3선(경계 및 조기경보선)은 경기장 외곽(울타리외곽 500m이내, 취약지 2Km이내), 4선(방법 및 정보확보선)은 기타지역과 일본 및 북한지역(남북분산개최시 경기장)으로 구분하여 1선은 경호원, 사복경찰(출입통제, 경내 질서유지, 핵심지역 봉쇄, 관람석 안전확보, 감시 등), 2선은 정복경찰, 소방 및 군지원요원(차량검색, 주차관리, 취약지점경비 등), 3선은 전경, 군, 용역경비원, 안전자원봉사요원(검문, 도보순찰, 기동순찰, 교통 및 질서유지안내, 고층건물감시, 대공경계, 감제고지수색 등), 4선은 원격지 경찰 및 군, 일본주재 연락관 및 상황요원, 특파원, 교포(방법활동, 첩보 및 정보전파) 등을 배치·지정하여 임무를 부여하는 것이다.

넷째, 호신장비, 방호장비, 통제장비, 검색장비, 감시장비, 통신장비 및 시설의 첨단과 학화와 이와 같은 장비와 시설에 대한 전문운영요원의 확보로 대회안전을 완벽하게 지원하도록 하여야 한다.

우선 갖추어야 할 호신장비로는 가스분사기·경봉·가스봉 등을, 방호장비는 CCTV·인타폰·보안등·조명등·탐조등·펜스 등을, 통제장비는 AD카드검색기·바리케이트·검색대 등을, 검색장비는 문형금속탐지기·폭발물탐지기·폭발물엑스레이투시기·가스탐지기·휴대용금속탐지기 등을, 감시장비로는 포대경·쌍안경·침투탐지경보시스템 등을, 통신장비는 팩시밀리망·컴퓨터통신·유선CCTV·휴대용무전기·무선전화기·인공위성 등을 적절한 소요판단에 따라 최신장비를 개발 또는 구입하여 적재적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특히 문형금속탐지기(M·E), 기계경비시스템 등에 대한 중앙통제 컴퓨터 시스템을 각 경기장 건설에서부터 기획, 개발, 설치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안전장비, 카메라 및 방송장비, 소방, 전산시스템 등의 운영 및 점검요원을 사전에 선발하여 단계별 교육과정에 따라 전문요원으로 육성하여야 한다.

아울러 사이버테러(Cyber Terrorism)⁵⁰⁾ 등 컴퓨터범죄에 대한 보안대책을 강화시켜

50) 사이버테러란 은행이나 기업 등의 전산망을 교란시키거나, 정보를 조작해 개인이나 사회에 재난을 야기시키는 조직적 테러행위로 그 기법으로는 전자우편폭탄(E-Mail Bomb), 서비스 거부(Denial of Service), 논리폭탄(Logic Bomb) 등이 있으며, 1993년 1월 런던 금융기관 중 개저래소의 사이버테러협박, 1995년 12월 미국 웹컴 전자쇼핑물업체의 전자우편폭탄테러,

야 한다. 최근 컴퓨터 바이러스를 통한 사이버테러로 원격지 보안시스템을 마비시키는 것은 물론 월드컵 데이터베이스 및 위성방송통신체계 파괴 등 대참사를 촉발할 가능성에 대비하여야 한다.

V. 결 론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21세기 첫 장을 열 2002년월드컵축구대회를 우리나라에서 개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정치·경제·사회적인 효과가 크면 클수록 테러나 범죄집단의 목표물이 될 가능성 또한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

따라서 월드컵조직위원회, 정부, 국민 모두가 안전대책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어려운 경호경비환경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① 안전통제기구의 적절한 편성과 임무분담 및 책임, ② 정확한 경호경비대상 판단과 전문소요인력 확보, ③ 4선경호경비개념 도입에 의한 안전활동 강화, ④ 안전장비 및 시설의 첨단과학화와 통합화, ⑤ 사이버테러 등 컴퓨터범죄에 대한 보안대책, ⑥ 가칭 '한일공동안전대책기구'의 편성·상설 운영으로 신속한 안전공조체제 구축, ⑦ 국제축구연맹임원 및 본선진출 32개국 체육관계자 초청, 속도 금강산 관광 유치와 북한 체육인 및 관계기관요원 초청, 월드컵경기 관람유치를 통해 북한 대남테러 억제, ⑧ 끝까지 월드컵 남북분산개최 추진 노력 등 앞으로 준비기간이 4년도 채 남지 않았으므로 우리 모두가 월드컵 준비에 최선을 다해야 하겠다.

그러나 우리는 10년전 불가능할 것 같았던 '88서울올림픽을 그 어느 대회보다 성공적으로 치러 한국인의 저력을 유감없이 과시했던 경험과 그 교훈을 삼아 국내적으로 동서화합과 남북평화, 국외적으로는 한일화합과 세계평화를 일구어 우리 모두가 '너희들의 역사'를 '우리들의 역사'로 느끼게 할 수 있도록 성공적인 월드컵이 되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가져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좋은 예방책만이 경호대상자는 물론 경호요원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말과 같이 월드컵의 성공적 열쇠는 사후대처보다는 사전예방에 중점을 두어 설계되고 실행되도록 민·관·군·학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 준비하여야 할 것이다.

1996년 미국방부 전자장치의 외부침입사건(250만건), 1997년 10월 미국 샌프란시스코 전기 정전테러사건 등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국가안전기획부, 국제테러·범죄정보, 1997. 9, 29~32면).

參 考 文 獻

- 국방부, 군사작전과 보도 -동해안 대침투작전시 언론보도내용 분석 및 대응-, 국방부, 1998.
- 김두현, 경호학개론, 도서출판 쟁기, 1996.
- , 경호경비법, 도서출판 와이제이, 1996.
- 김영대, 1997 가스사고연감, 한국가스안전공사, 1998.
- 서울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 제24회서울올림픽대회지원부서 결과보고서, 1998.
- 서울특별시경찰국 올림픽기획단, 제24회서울올림픽대회 종합치안활동백서, 1988.
- 한국경비협회, 한국경비협회20년사, 한국경비협회, 1998.
- 국가안전기획부, 국제테러·범죄정보, 1997. 9.
- , 국제테러·범죄정보, 1998. 3.
- , 국제테러정보, 1998. 7.
- 김대수, 국제테러 추세와 우리의 유의점, 경찰청 경비국, 「대테러연구」 제20집, 1998. 1.
- 김정현, 북한 최고통치권자의 경호부대에 대한 고찰 -호위총국을 중심으로-, 국방참모대학논문, 1998.
- 박원탁, 조선일보사 폭파위협에 대한 대테러 방안, 경찰청 경비국, 「대테러연구」 제20집, 1998. 1.
- 박태유·김두현, 자치체 소방역량에 관한 연구, 한국경호경비학회, 「경호경비연구」 창간호, 1997.
- 백영철, 김정일 권력승계이후의 대남전략의 전망과 대처방향, 경찰청 경비국, 「대테러연구」 제20집, 1998. 1.
- , 2002년월드컵대회의 대테러전략, 경찰청 경비국, 「국책연구」 38호, 1996. 3.
- 안승일, '98 프랑스월드컵 현장리포트 -그 성공과 비결-, 1998. 8.
- 이윤근, 각국 민간경비산업의 발전과정과 향후전망, 한국경호경비학회, 「경호경비연구」 창간호, 1997.
- 2002년월드컵축구대회조직위원회, 2002년월드컵축구대회 성공적 개최를 위한 세미나 결과, 1998. 10.
- , 2002년월드컵축구대회경기장건설관련안내자료(2002년 월드컵 준비자료집4), 1997. 3.

치안본부올림픽기획단, 제24회서울올림픽대회 치안백서, 치안본부, 1989.

최창신, 2002년월드컵유치의 당위성과 경제적 파급효과, 「국책연구」 38호, 1996. 3.

Rathburn William, The Olympic Games-Establishing Future Direction For Security,
에스원 「97서울국제시큐리티 포럼」 1997. 6.

United States Department of States, Patterns of GLOBAL TERRORISM -1996, April
1997.

ABSTRACT

A Study on The Security Measures of The 17th FIFA World Cup in 2002

by Kim, Doo Hyun

I Study on the security measures of the World Cup Korea and Japan jointly in 2002.

The paper, purporting to consider security counterplans, comprise five chapters.

Chapter I which sets out purpose, scope and method, is followed by chapter II, dealing largely with the legislations and importance on the security measures of the 17th FIFA World Cup in 2002.

Chapter III concerns the security environment -internal environment, external environment- and the highlights accidents and events of history on the FIFA World Cup.

Chapter IV consider security measures of the World Cup Korea in 2002.

It is followed by concluding observation made in chapter V.

To be operated security systems effectively, these need to be regulated according to a security measures organizations, security facilities and equipments, security plan and protective force, security operations and so forth.